



# ‘독서불패’, 책 읽는 CEO는 실패를 모른다

책 읽어주는 컨설턴트 한근대  
“책 소개하면서 혜택받은 사람은 바로 나”  
독서야 말로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경영컨설팅, CEO 코칭, 인력개발 자문... 한스컨설팅 한근대(48) 대표가 주로 하는 일이다. 그는 또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이자 인기강사이고 또한 경영관련 서적을 쓰고 번역하는 저술가이기도 하다. 거대 조직체가 던지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프리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술가로서 2001년 《나를 위한 물을 만들어라》를 비롯해 《회사가 희망이다》《40대에 다시 쓰는 내 인생의 이력서》와 최근에 나온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까지 그가 쓴 책의 매력은 저자 한근대 자신이 자기계발에 성공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하나의 사례라는 점이다.

### 공학박사에서 프리 에이전트로

서울대 섬유공학과 졸업을 시작으로 럭키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대학 고분자공학 박사,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39세), IBS컨설팅 그룹 입사(무보수), 핀란드 헬싱키

대학 경영학 석사, 1999년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등 그가 사회인으로서 달았던 직함들이다. 공학자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그리고 프리 에이전트까지, 때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흔히 위기라고 말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왔다. 최연소로 이사가 돼 영원히 같이할 것만 같던 회사에서 자의 반 타의반 나와야 했을 때다. 갑자기 변한 상황에 모든 게 암담했지만 그 와중에 그의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다. 기업의 임원으로서 이사진을 앞에 두고 회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했을 때의 가능성을 조목조목 짚어가는 당당한 컨설턴트의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받는 월급이 똑같은 조직생활에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컨설턴트였죠. 제가 공학박사 출신이다보니 남들보다 ‘과학적’인 면이 있는데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비현실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하면 저 사람 들보단 잘하겠대’고.”

그렇다고 그가 컨설턴트의 꿈을 키워으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칼럼니스트라는 일만 해도 그렇다. 사실 공대생들에게 글쓰기만큼 곤혹스런 것도 없다. 논문이나 보고서라면 모를까, 글다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42살이 되고 나서였다. 기획담당 임원으로서 사보 편집부에서 청탁을 받은 것이다.

“청탁이 들어오면 난 글 같은 건 못 쓴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이 그러더군요. 평소 말하는 것처럼만 쓰면 될 텐데 한번 써 보라고요. 결국 그 친구가 제 글을 봐줬는데, 운동권 출신으로 글을 잘 쓰는 직원이었습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더군요.”

사보에 글을 쓴 후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급기야 6개월간 아예 고정칼럼을 써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이때부터 200여 명 되는 대졸사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로 시도하는 등 글의 재미와 효과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책읽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한 대표의 독서목록에는 무협지나 만화책, 추리소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경제경영서를 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큰 감흥이 없었다.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5년도였을 겁니다. 임원교육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정이 빠듯한 것도 아니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분됐죠. 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의문에 대한 답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에 100권 이상 꾸준히 경제경영서를 읽기 시작했죠. 퇴직하기 3, 4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던 책이 제가 컨설턴트로 변신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셈입니다. 현장 경험과 독서를 통해 제 나름의 틀을 짤 수 있었으니까요.”

#### 책을 읽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한 대표는 작년에 279종을 그리고 올해 8월 17일까지 159종을 읽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서점을 찾고 그때마다 10권에서 15권 정도의 책을 사온다. 그렇다고 한 대표가 경제경영서적만 읽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그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사철학史哲’을 찾아 읽는다. 또 자서전이나 평전 등 개개인에 대한 삶을

다른 책도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좋은 시스템만큼 중요한 게 좋은 리더라는 판단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식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무엇보다 먼저 눈빛이 형형해져요. 결국 책을 많이 읽을수록 실패의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 소장이 강조하는 독서의 기술은 간단하다. 독서야말로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다. 한번 읽기만 한 책,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책, 타이핑해가며 읽은 책, 읽은 후 그 내용을 요약한 책 등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시간이 다르다. 한 대표의 경우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해가며 중요도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문득 떠오른 단상이나, 그로 인해 파생된 아이디어를 빠지지 않고 책의 여백에 메모한다. 또한 칼럼니스트로서 밑줄 그은 내용을 200여 가지 주제로 분류한 폴더에 입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에 대해서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물론 업무에 쫓기는 CEO들로서는 독서에 이처럼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일 수는 없다. 최근에 나온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이러한 CEO들을 위해 쓴 독서일기다. 너무 바쁜 CEO들을 위해 5~7분 분량으로 책을 소개해 달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부탁으로 SERI-CEO의 ‘북리뷰’ 코너에 연재한 내용을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재가공한 책이다. 책의 전문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면 책이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깔끔하게 세탁된 옷을 입듯 새로운 각오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한근태 대표 자신이다.

“요약, 특히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는 요약은 고난도의 기술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책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좋은 책을 가장 깊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한근태**

취재\_신동섭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컨설턴트 한근태가 본 출판계

#### 자기계발서 만드는 출판계부터 자기계발하라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 ‘요즘 사람 책 안 읽는다’는 기자의 표현에 한근태 대표는 출판계에 대한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출판계가 읽을 만한 책을 충분히 생산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 보면 정말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보다 단지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책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다.

“강의를 통해 만나는 우리나라 2, 30대 젊은이들이 원하는 책은 ‘10억 만들기’나 ‘부동산으로 부자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좀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대표는 이 외에도 단지 책이 아니라 책에서 비롯된 파생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등 비즈니스에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과, 근본적으로 출판계 스스로 힘을 모아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 시장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출판사 매출 규모가 400억 원이 아니라 4,000억 원은 되어야 진정한 산업으로서 기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